

군산시, 상수도 현대화 '맑은 물' 공급 박차

불량수도관 교체·누수탐사·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2024년까지 600억원 투입 유수율 85%까지 끌어올려

군산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유수율을 높여 물 낭비를 없애고, 노후관 교체로 더욱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 방향은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 운영관리 ▲새만금지역 및 도서지역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 등이 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9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6개년에 걸쳐 총 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불량수도관 교체, 누수탐사,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K-Water와 군산시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소를 개설하고 환경부에 사전기술 검토를 신청해 오는 9월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현대화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오는 2024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98.9% 달하는 가운데 여전히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읍면 지역 주민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해 급수공사비 지원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한다.

이밖에 새만금지역의 내부개발에 따라 체계적인 용수 공급 및 식수난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364억원의 예산

을 투입, 새만금전용 옥구배수지 건설과 방축도 및 어청도 지역에 식수원 개발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수도물 표본수 및 급수과정별, 건축물 저수조 등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해 수질로 인한 걱정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최영환 군산시 수도사업소장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익산지역 독립운동의 상징인 남부시장 인근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근대역사공간으로 거듭난다. <익산시 제공>



정음시는 토마토 재배능력을 대상으로 토마토 품질향상 집중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정음시 제공>

익산 '독립운동 상징' 남부시장 인근 근대역사 품은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시, 국비 등 142억원 투입 역사 재정립·환경개선 추진

익산시가 지역 독립운동의 상징인 남부시장 인근지역을 근대 역사를 품은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을 2023년까지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2023년까지 국비 85억원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인화동 남부시장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업은 역사와 문화재생을 통한 역사의 재정립,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것이다.

시는 국비와 함께 총 142억원을 투입해 남부시장 일대 11만4500㎡에 대한 가로 간판 정비와 노후주거지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생활 여건을 향상시킨다.

또 상권 회복을 위한 소리상생상회 조성,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에 나서게 된다.

특히 26개소의 근대건축물과 4·4 만세운동, 익산독립운동 등과 연계한 체험시설을 구축해 역사교육을 고취한다. 익산4·4만세운동은 일본 제국주의 만행에 저항한 1919년 3·1운동을 계승해 같은 해 현 남부시장 일대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이다.

시는 올해부터 부지를 매입해 근대역사의 숲을 조성하며 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도시재생사업 연차별 성과분석 용역을 전개하게 된다.

시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해 주민 생활밀착형 어울림공간과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근대건축물을 활용해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새로이 정립하고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삶의 만족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정음시, 수출 작목 토마토 품질향상 컨설팅 교육

정음시는 지난 31일 지역 내 토마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작목인 토마토의 품질향상을 위한 집중 컨설팅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교육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과 전북도농업기술원이 협력해 추진했다.

교육에서는 이승우 홀타-큐 대표가 강사로 나서 수출 토마토 농가의 생육 문제점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수출 토마토 재배 농가 5개소를 현장 방문해 사례 위주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정음시는 지난해 8000만원을 투입해 토마토 수출 생산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 토마토 재배면적은 4.8ha로 2020년도 수출물량 100t은 전량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도교육청, 정치·경제인 등 개인교육기부단 모집

전북도교육청은 7일까지 개인교육기부단을 모집한다.

개인교육기부단이란 우수 역량과 재능을 가진 개인기부자가 교육기관과 학교를 찾아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기부활동을 하는 인력풀을 말한다.

대상은 정치인과 경제인, 의료인, 법조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등 전문가 또는 전문 분야 퇴직자이다.

또 과학을 전공하고 교육 기부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학부모 과학실험 도

우미'를 신청하면 된다.

학부모 과학실험 도우미는 과학교구·기자재 관리, 수업 준비·정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희망자는 신청서 등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 전문성과 자격 여부를 서면 심의한 뒤 40명 내외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뒤늦게 배운 군산 할머니들의 시집 '화제' 평균나이 75세 90여편 '할매, 시작하다' 출간

"내가 공부해서/가장 보람 있을 때는/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때다//내과, 산부인과, 치과.../눈으로 병원 이름을 읽고/찾아갈 수 있는/이 편한 세상이 참 좋다"(76세 차갑자 할머니의 시 '이 편한 세상') <사건>

시골 할머니들이 글을 배워 시까지 쓰기 시작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평균 나이 75세. 배우고 싶었지만 어려운 환경으로 배우는 뜻을 접어야 했던 할머니들이 글을 배워 '할매, 시작(詩)하다'라는 제목의 시집을 출간했다.

시집에는 군산에서 운영하는 늘푸른 학교에서 문해 교육을 받은 할머니들이 쓴 시 90여편이 담겼다.

'공부한다고 하네/공부한다고 하네/나 혼자 설레고 너무 좋았네/더 많이 배우고 싶네' <78세 문후례 할머니의 시>

뽀뽀뽀뽀 글씨, 군데군데 틀린 맞춤법. 서툰 구석이 많은 시지만, 오히려 그래서 시들은 더 빛난다.

그 자체가 할머니들의 굴곡진 삶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애환 가득한 인생은 한글을 배우자 시의 소재가 됐다.



한 자 한 자 꼭꼭 눌러쓴 시에는 한글을 눈앞에 두고도 읽지도 못하고 까막눈으로 살아야 했던 서러움과 아픔, 찰싹질이 넘었지만 이제라도 한글을 배우게 된 설렘과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90세에 늘푸른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이정은 할머니(93)는 "배운 내용을 들으면 잊어버리지만, 선생님과 친구가 있다는 것에 외로움도 잠시 잊고 공부에 취해 하루하루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있다"며 "학교가 낙원"이라고 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순창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순창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사전연명의료의향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중단 등을 자신이 건강할 때 결정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 보장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를 보호하고자 2018년 2월에 도입된 제도다.

연명 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치료를 진행하면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것. 따라서 사전에 의향서를 작성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다.

연명 의료에 해당하는 시술은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해당된다. 의향서 등록 신청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순창군보건의료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지사를 찾아 상담 및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작성 후 변경이나 철회도 가능하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남원 관광명소 '월매야시장' 판매대 운영자 모집

남원시가 다양한 먹거리와 화려한 볼거리가 가득한 야간 관광명소인 월매야시장에서 꿈과 열정을 펼칠 판매대 운영자를 모집한다.

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새내기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대 운영을 구상했다.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먹거리 판매대 운영자 25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합리적인 가격에 특색있고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맛으로 구성된 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희망자는 공설시장과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란에서 야시장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월매야시장은 3월 중순부터 새롭게 재개장해 금·토요일 주 2회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